

우리나라 자생수종 3



▲ 구상나무



전 승 훈

경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 과명 : 소나무(Pinaceae)
- ▶ 학명 : *Abies koreana* Wilson
- ▶ 영명 : Korean Fir
- ▶ 한명 : 濟州白檜
- ▶ 기타 :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koreana*가 이름표(종소명)에 붙어있는 한국 고유종(endemic species)

□ 분포 및 생태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제주도 한라산,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 등 남부 지방 해발 1,000-1,950m의 고산지대에 무리지어 자생하나 순림을 이루는 곳은 해발 1,500m이상이다.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주로 북사면과 남사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제주조릿대, 주목, 고채목, 털진달래 등과 함께 분포하고,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잣나무, 고채목, 마가목, 야광나무, 단풍취 등과 함께 자란다.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남부지방의 고산지대에 자생하나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생육이 가능하다. 다만, 자생지의 기후나 입지특성이 다른 도시지역의 경우 생장이 양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생태**

냉온대 고산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자연적으로는 풍매에 의한 수분매개와 바람에 산포되는 종자분산기구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한다. 인공적으로는 실생묘에 의해 주로 번식되나 삼목도 가능하다. 양수성 수종으로 공중습도가 높으며, 유기질이 풍부한 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나, 초기생장기에는 내음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식재가능 및 기법**

피랏밋모양의 균형이 잘 잡힌 수형과 수평으



▲ 구상나무

로 펼쳐지는 가지들의 모양새, 몽특하면서 부드럽고 섬세한 잎의 질감과 그리고 푸른, 붉은, 검은 색깔의 열매가 하늘을 향해 힘찬 기상을 뽐내듯 앉아있는 형상은 구상나무만이 지닌 뛰어난 자질이다.

구상나무의 고고한 품격은 세계 3대 미수(美樹)라 일컫는 히말라야시더, 아라우카리아, 금송에 견주어 손색이 없으며, 이러한 가치는 1917년 식물수집가 Wilson에 의해 아놀드수목원에 도입된 이래 왜생형 등 18개의 품종이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먼저 평가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는 공간특성에 맞게 열식이나 액센트, 또는 군락식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피가 하얀 자작나무류와 잘 대비되고, 하층배식에는 산철쭉류와 조릿대류가 적합하다. 수형이 아름답고 질감이 고와 크리스마스 트리로써의 가치도 매우 높다.

□ **크기와 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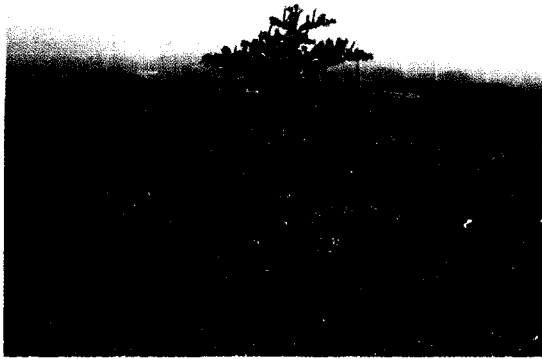
구상나무는 소나무과 전나무속에 속하는 상록 침엽교목으로서 다 자라면 나무높이가 약 15m에 이르고 수관폭도 8m에 이른다.



▲ 구상나무

구상나무





▲ 구상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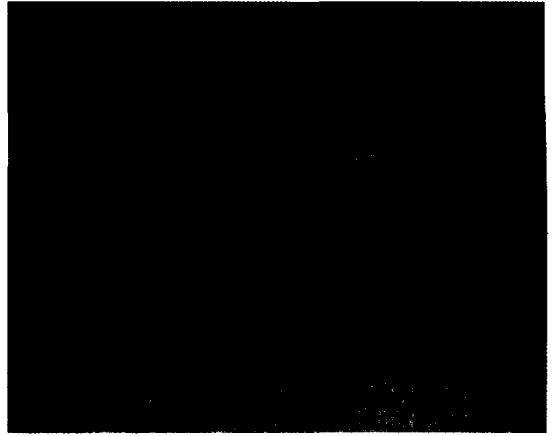
자생지에서의 성장특성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입지특성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라산 자생지의 구상나무 30년생이 수고 2-3m, 흉고직경 15-20cm, 50-60년생이 수고 5-6m, 흉고직경 20-30cm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생장이 매우 느린 수종이라 할 수 있다.

□ 입지적합성

식재에서의 입지특성은 어느정도 햇빛이 요구되나 바람이 적고 상대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내한성은 강한 편이나 내공해성은 약한 편이다. 토양환경은 습도가 높으나 배수가 잘되며 토심이 깊고 유기질이 풍부한 식양토 또는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 계절적 효과

구상나무의 계절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상록수(evergreen tree)라는 점이며, 특히 봄철에 돋아나는 연녹색의 싹은 매우 아름답다. 또한, 8-9월에 성숙하기 시작하는 송방울은 품종에 따라 붉은색, 자주색, 검청색, 녹색으로 가지끝에 빼곡히 매달려 색



▲ 구상나무

다른 멋을 자아낸다.

□ 유지관리

입지환경의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없으나, 바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식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흙을 붙여야 생장이 양호하다. 